

Since Oct. 10, 2004
해외 한인 장로회

Church of the Lord

하나님의 사랑교회

Apr. 14, 2024

(통권 996호)



오늘의 말씀

“평강의 삶을 위한 습관들”

[빌 4:6~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담임목사 정석진

David Seokjin Chung / Senior Pastor

Cell 551.999.5358

pastor.ds.chung@gmail.com

5 Old Dock Rd.

Alpine, NJ 07620

Tel. 845.398.0691, 201.767.1004

Fax. 845.398.1365

www.churchofthelord.org

우리는 지난 주일로부터 4주간 예정으로 평강의 삶(Peaceful Life)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확실성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두번째 말씀으로 우리의 생애 평강의 삶을 가져오는 좋은 습관들을 찾아서 우리의 삶에 길들이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의 삶이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것으로 찾아올 수 있을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일종의 연습이 필요한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딤후 4:7~8(개역한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8)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이란 말을 떠올리면 항상 연상되는 것이 New York Phil의 상임지휘자였던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의 저 유명한 말입니다. 어떤 음악을 가져와도 Bernstein의 음악으로 만들었다는 평을 받았던 천재적인 음악가였어도 그는 연습을 매우 중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루 연습을 쉬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쉬면 아내가 알고, 사흘 연습을 쉬면 청중이 안다.”

바울은 그 시대의 스포츠 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가르침 속에는 운동선수들의 모습이 자주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고대 올림픽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금세 썩어버릴 월계수 면류관을 얻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는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빗대어 그렇게 썩어버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엄청난 인내와 절제로 연습에 매진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리를 경계하기도 했고, 달리기를 하되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은 상의 얻지 못한다는 교훈도 주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된 그 상급을 받으려고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전제로 부어드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마치 레너드 번스타인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연습하라고…

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삶의 습관의 변화가 그들의 깊은 영성의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의 모임의 패턴은 정해졌습니다. 사도들의 교리적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아가페 사랑의 교제로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일, 그리고 모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의 모임의 요소들이 다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거룩한 습관은 그들의 모임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 구시 기도 시간]이라는 패턴화 되어진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한 번 시키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 일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에서의 그 급박한 기도로 예수님은 흐르던 땀방울이 피가되어 쏟아질 정도로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깨워 놓으면 또 잠들고 깨워 놓으면 또 잠들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매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런 경건의 연습은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취해야 할 평강의 삶을 위한 연습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불확실성의 불안감이 팽배할 수 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습관으로 우리 삶에 젖어 들게 해야 할 평화로운 삶을 위한 연습의 실질적인 예를 나눠봅시다.

하나님 신뢰하기.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많은 때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만 언제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잠 3:5-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솔로몬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 3: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기도와 묵상의 습관들이기. 무슨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염려부터 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무슨 일이나 우리 능력의 한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사는 동안 전쟁이 일어나서 맞서 싸우러 나아갈 때 원수의 수와 힘을 주목하지 말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연약한 자신에게 주목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 주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며 주님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염려부터 하는 습관을 버리고 기도부터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빌 4:6-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많은 요인들이 바로 분노와 원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한 말, 다른 사람이 내게 보인 태도, 그의 행동들... 이런 것에 대한 분노를 키우면 우리는 결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권고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아니, 희생을 당한 건 난데, 왜 나한테만 용서하라고 해? 정작 내게 아픔을 준 저 인간은 아주 희희낙락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만 용서하라고 하느냐고?” 외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서받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여 평화가 깨어진 삶에 아파할 우리를 위한 권고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엡 4:31-32]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와 관용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또 다른 습관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갖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신적 영적 건강에 대단히 선한 영향을 주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해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 22:37-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연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안이숙 여사의 저서 가운데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이숙 여사는 이 책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 속에서 자신을 보고, 자신이라도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런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 다는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관용의 습관이 자신을 더욱 성찰하게 하고 그 안에서 더욱 평안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말하는 습관을 길러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이 결국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족하는 습관 역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생각입니다. 내게 결핍된 것에 대한 생각으로 모든 생각을 시작하면 항상 염려와 불평의 사람이 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모든 생각을 시작하면 평화로운 마음이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히 13: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끝없는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했던 선물 만나조차도 아주 [박한 식물]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삶인가요?

그리고 안식의 습관도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현대인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마음이 놓이지 않는 병이 우리들의 병입니다. 이번에 제가 몸이 좀 아파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라는 주변 여러 성도님들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께서 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휴가라도 좀 가지라고 권하셨는데, 저도 잘 쉬지를 못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쉬면 세상이 다 안 돌아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쉬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쉬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규례가 가진 의미를 배웠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쉬어라. 안 쉬면 죽인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쉬는 것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섬기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습관입니다. 항상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삼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잠시도 그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바울사도의 삶이 저에게 언제나 좋은 모델이 됩니다. 바울은 그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남을 섬기는 일을 기뻐한 사람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것을 보세요.

[행 20:35]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타인을 섬기기 위해 내 것을 풀어 나누는 일은 크리스천의 좋은 습관입니다. 이걸 해 본 사람만 그 진정한 기쁨을 압니다. 내 은행에 잔고가 바닥이 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누군가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복됩니다. 섬김과 관용의 습관은 평화의 삶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삶에 고통의 현실이 산재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 고통이 없는 삶을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불확실성의 현상들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줄 수 있는 깊은 평강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평화의 삶을 날마다 연습하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습관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잡을 때 우리는 진실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